

2주차

남북국의 성립과 김춘추, 연개소문

김 갑 동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신라의 반도 통일 정책

- 김춘추의 계보와 즉위 과정

02. 김춘추와 연개소문

- 김춘추의 즉위와 정책
- 연개소문의 가계와 집권 과정

03. 신라의 반도 통일

- 백제·고구려의 멸망과 나당 전쟁
- 신라 통일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

04. 발해의 등장과 남북국 관계

- 발해의 건국과 사회 성격
- 남북국시대론
- 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4차시

발해의 등장과 남북국 관계

학습목표

- 한반도 북부 고대 국가 발해의 건국과 남북국 시대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발해의 건국과 사회 성격
- 남북국시대론
- 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발해의 건국과 사회 성격

고구려 멸망 이후 대동강 이북 지역

- 당의 안동도호부 : 평양에 위치
→ 요동성으로 옮김
- 고구려 유민들이 저항하자 당이 보장왕을
요동 도독으로 삼음
- 668년 당이 보장왕의 손자 고보원을
조선군왕으로 삼음

당의

고구려 자치 국가 허용

- 안동도호부 폐지
-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를 안동도독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통치하게 함
→ ‘소고구려국’
- 당은 자치를 통해 간접 통치를 하고자 함

발해의 건국

- 발해의 민족구성
 - 소수의 지배층 고구려계
 - 다수의 피지배층 말갈족

대조영은 누구인가?

- 대조영 출신에 대한 기록

말갈 수령 출신 : 최치원의 글, 《신당서》, 《통전》

고구려 별종 또는 옛 장수 : 《구당서》, 《삼국유사》, 《제왕운기》, 《고려사》

대조영의 발해 건국

- 거란의 이진충이 영주 지역을 점령함
→ 이후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
동쪽으로 이동, ‘진’국을 세움
- 동모산 : 중국 길림성 돈화 지역으로 추정
- 발해 영토 : 옛 고구려 지역 대부분을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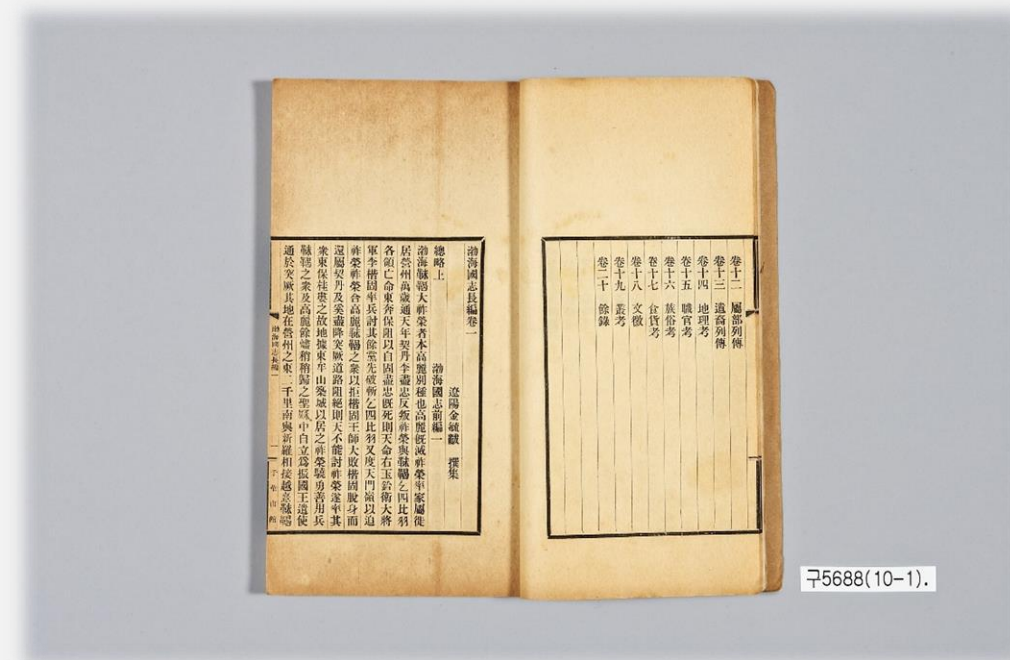
발해는

고구려의 후예인가?

- 발해 주민은 고구려 사람이었는가?
 - 걸걸중상, 걸사비우
- 발해의 지배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?

발해는 고구려의 후예인가?

- 《발해국지장편》 발해 유민
 - 대씨 : 100명 → 고구려계
 - 고씨 : 59명 → 고구려계
 - 장씨 : 21명
 - 이씨 : 18명
 - 양씨 : 9명
 - 오씨 : 11명
 - 하씨 : 3명



《발해국지장편》

발해는

고구려의 후예인가?

-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

“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 받았다. ”

- 발해를 ‘고려’로, 발해왕을 ‘고려왕’으로 지칭
- 정혜공주 무덤 양식 : 고구려 석실 고분과 같음

남북국시대론

남북국시대론

- 유득공 《발해고》 서문

“ 고려가 발해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을 보면, 고려의 국력이 떨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. ... ”

남북국시대론

“ 옛날에는 고씨가 북에서 고구려를,
부여씨가 서남에서 백제를, 박·석·김이
동남에서 신라를 세웠으니 이것이
삼국이다.
여기에는 마땅히 《삼국사》가 있어야
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한 일은 잘한
일이다. ... ”

남북국시대론

“ 그러나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었으니 이것은 남북국이다. 여기에는 반드시 남북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. ”

남북국시대론

- 최치원, 〈사불허북국거상표(謝不許北國居上表)〉
- 《삼국사기》
→ 발해를 ‘북국’으로 지칭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초기에는 대립적인 관계
- 《신당서》
 - 발해의 주요 교통로 중 ‘신라도’가 있음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《고금군국지(古今郡國志)》
 - 신라의 국경도시 천정군(지금의 함경도 덕원)
~ 발해 동경용원부까지 39개의 역(驛) 있었음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제1기 : 대조영
 - 《동사강목》 : 대조영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자 신라가 대조영에게 대야찬 관등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음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제2기 : 대무예 → 활발한 정복 사업 추진
 - 신라의 경계 : 하슬라(지금의 강릉)에 군사 배치
 - 당이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 중에 신라를 끌어들임
 - 《입당구법순례행기》 : 산동의 신라인들의 발해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추석을 지내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음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제3기 : 대흙무
 - 수도를 상경용천부로 옮김
 - 당으로부터 ‘발해국왕’이라는 칭호를 받음
 - 《삼국사기》 : 신라가 발해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음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제4기 : 대인수 이후
 - 발해 전성기
 - 5경 15부 62주 설치
 - 《요사》 : 발해가 신라를 공격하여 영토를 빼앗은 기록이 있음
 - 쟁장 사건, 빈공과 서열 다툼
- 신라와의 대립 심화

발해와 신라의 대외 관계

- 제5기 : 대인선
 - 발해 멸망기
 - 911년 경 : 발해가 신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사신을 보냄
 - 925년 :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킬 때 신라가 지원을 함

마무리

- 신라의 통일 전쟁 이후, 발해 건국
→ 남북국시대 전개

- 신라와 발해 : 대립과 교류 활발

SOURCES

[출처01] 국립중앙박물관

<https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relic/search/view?relicId=34436>

한규철, 《발해의 대외관계사》, 신서원, 1994.

한규철, <신라와 발해의 정치적 교섭과정>, 《한국사연구》 43호, 1983.

김현구, <일당관계의 성립과 라일동맹>, 《김준엽 화갑기념 중국학론총》, 1983.

신형식, <삼국통일의 역사적 성격>, 《한국사연구》 61·62합집, 1988.

김영하, 송기호 외 《한국고대사론》, 한길사, 1988.

변태섭, <삼국의 정립과 신라통일의 민족사적 의미>, 《한국사 시민강좌》 5, 일조각, 1989.

노태돈, <연개소문과 김춘추>(위의 책)

송기호, <동아시아 국제관계속의 발해와 신라>(위의 책)

신형식, 《한국고대사의 신연구》, 일조각, 1984.

이내옥, <연개소문의 집권과 도교>, 《역사학보》 99·100합집, 1983.

전미희, <연개소문의 집권과 그 정치의 성격>, 《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론총》 상권, 일조각, 1994.

주보돈, <비담의 난과 선덕왕대 정치운영>(위의 책)

정용숙, <신라 선덕왕대의 정국동향과 비담의 난>(위의 책)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진형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